

제주시내권 통학버스 올해도 계속 운행

도교육청, 올해 통학버스 임차료 45억여원 편성
신성여중·고, 대기고 지원에 포함… 예산은 감액
한림공고·뷰티고 등 읍면지역 통학 지원도 확대

지난해 형평성과 예산 중복 문제로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제주시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통학버스가 2026년에도 계속 운행된다. 다만 해당 학교들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보다 줄어들어, 원거리 통학 학생을 중심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차료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총 45억8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편성에는 그동안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 종료가 거론됐던 신성여중·고와 대기고 등 3개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축소됐다. 2026년 신성여고의 통학버스 예산은 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7억2000만원)보다 4억원 이상砍감됐다. 신성여중과 대기고도 각각 2025년 5억4000만원, 2억7000만원에서 2026년 2억6200만원, 2억원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동지역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2025년을 끝으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 2026년까지는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3개 학교는 인근 지역 통학 학생 비중이 높아, 원거리 학생 위주로 운영 범위를 조정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 이후 통학버스와 대중교통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은 확대했다. 한림공고와 한국뷰티고등학교는 2026년부터 학교

장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각각 6억 3000만원과 3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제주시 동지역 학교의 통학버스 지원 축소에 따른 학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와 협력해 대중교통 노선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2026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신성여중·고와 제주중앙고, 영주고 등 아라동·제주대 인근 학교를 경유하는 순환버스 신설과 대기고·삼양동 학생을 위한 노선 보강, 심야버스 증설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림읍에 대해서는 옵서버스 추가 배치 방안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도교육청, 정기 안전보건교육
학교·기관 협업 종사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학교 및 기관 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조리종사자, 청소원, 시설관리원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과 서귀포고등학교 천지관에서 12시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위험 원인에 따른 상황별 대응 방법과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육 전문성을 위해 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간호사, 노무사, 소방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

주 교육 과정은 학교 현장 위험 성 평가의 이해와 실제, 최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균골격계 질환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요령 등이다. 김채현기자



강한 바람에 몸을 움츠린 관광객들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19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강한 바람을 피하려 몸을
강희만기자

오늘 아침부터 제주에 ‘대한’ 추위

아침부터 기온 뚝… 21~22일 강풍 동반 많은 비·눈

‘일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을 맞은 제주에 20일부터 강추위가 예상된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제주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이어 21~22일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특히 20일 오전부터 기온

도 크게 내리며 매우 추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21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중산간 2~7cm, 해안 1~3cm 등이며 예상 강수량은 5~10mm가량이다. 기온은 오는 주말까지 최저 1~4°C, 최고 8~11°C로 평년보다 낮겠고, 특히 20일 오전에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7°C가량 온도가 떨어져 춥겠다.

강풍을 동반해 19일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특히 22일 오후 늦게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오는 23일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24일에도 흐리고 오전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 휴일인 25일은 대체로 흐리겠다. 백금탁기자

유연 근무 통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

주 30시간 이하 근무조건 노동자 고용시 최대 50만원

제주도가 전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 근무 체계를 통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 30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18~49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 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전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 고용 노동자 연령 상한도 39세에서 49세로 넓어졌다. 또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64-805-339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경력단절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집’ (여러 직업을 가짐)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시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골목형상점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

올 1월 기준 17개소로 증가
도, 협의체 운영 등 내실화

상권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상점가별 특색과 경제성을 강화하는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원단’도 계속 가동해 지정 가능 상권 사전 발굴 등 초기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벌인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상점가는 올 1월 기준 17개소다. 2024년 5개소에서 2025년 한 해에만 12개소가 늘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골목상권의 가능성 을 보여줬다.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국비 공모 선정 등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상점가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가보고 싶은 골목형상점가 만들기 협의체’를 꾸린다. 협의체는 도와 유관 기관, 건축·철학·인문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 형제자매 일동

승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승진 및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68프랜즈 회원 일동

승진을 축하합니다



부이사관(전국체전기획단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양홍씨 문정공파 정방손 종친회
회장 홍영철 외 종친 일동